

간호대학생의 공유리더십과 리질리언스의 관계에서 메타인지의 매개효과

한주랑
서정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Mediated Effects of Metacogn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ed-leadership and Resilience of the Nursing Students

Ju-Rang Han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Seojeo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유리더십과 리질리언스와의 관계에서 메타인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S대학교 간호학과에서 2019년 1학기 6주간 팀기반학습에 참여한 138명의 학생이었다. 자료는 2019년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SPSS WIN 25.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유리더십과 메타인지, 리질리언스는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유리더십은 리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며, 공유리더십과 리질리언스의 관계에서 메타인지가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의 리질리언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유리더십과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과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공유리더십, 메타인지, 리질리언스, 대학생, 간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s of metacognition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shared-leadership and resilience of the nursing students. The study subjects were 138 nursing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eam Based Learning for 6 weeks, in the first semester of 2019.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SPSS WIN 25.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hared-leadership, metacognition and resilience. Also, shared-leadership affected resilience and metacognitio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ed-leadership and resilience. The finding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various teaching methods and intervention programs to increase shared leadership and metacognition in order to increase resilience of students in nursing colleges.

Key Words : Shared-leadership, Metacognition, Resilience, College Student, Nursing

*Corresponding Author : Ju-Rang Han(jrhan27@seojeong.ac.kr)

Received July 15, 2020

Revised August 6, 2020

Accepted October 20, 2020

Published October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은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노동강도의 증가, '태움'으로 대변되는 갈굼 문화, 간호업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역할 갈등 등 수많은 정신적·육체적·심리적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간호사 개인에게는 업무의 불만족을, 대상자에게는 불친절과 질 낮은 간호를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1]. 간호학을 공부하는 간호대학생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학생들은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과도한 학업부담과 함께 임상 실습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졸업 후 까지 이어져 결국 직장 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채 이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2]. 따라서 간호대학생에서 부터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학업적응을 높이는 것은 향후 간호사로서 임상현장에 진출하였을 때 직면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선행연구에서는 리질리언스(Resilience)를 주목하고 있다. 리질리언스란 스트레스나 역경을 극복하고 스트레스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유도하는 능력이다[3]. 즉 다양한 시련과 역경, 실패에 대한 인식을 발판으로 더 높이 뛰어오르려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 지속적인 발전이나 성과를 이룬 개인이나 조직은 대부분 실패나 역경을 딛고 일어난다. 그것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가짐으로써 문제해결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리질리언스의 능력은 타고 나거나 교육을 통해 발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4]. 리질리언스는 성공이나 적응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특성과 고난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발달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 상태의 두 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5]. 리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심리적 안녕 및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등이 보고되고 있다[5,6].

공유리더십(Shred-leadership)은 구성원 간 상호영향력이 발휘되면서 구성원들의 역량이 향상되는 새로운 리더십이다. Hiller at all. [7]은 팀이 긍정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독단적 1인의 지배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구성원들 간 집단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 배려와 지원이 중요한데 구성원 간의 배려와 지원은 상호의 격려와 인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8]. 그 과정에서 상호의존성이 향

상되면서 감정적인 면에서 발생하게 되는 장애요인을 보완하기도 한다[9]. 즉 팀 구성원들 간의 실패와 성공의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유대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고 서로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리질리언스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공유리더십을 가진 팀이 리질리언스가 높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10]. 한편 공유리더십과 종업원 인게이지먼트와의 관계에서 리질리언스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으며[11], 공유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리질리언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12].

메타인지(Metacognition)는 더 높은 차원의 생각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인식에 대한 인식”, “다른 사람의 의식에 대한 의식”, “생각에 대한 생각”이다. 즉 메타인지란 자신을 객관화하여 볼 수 있는 사고 능력이며, 자신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다. Brown [13]은 메타인지가 학교 등의 교육기관과 실험실 뿐 아니라 운전과 음식을 만드는 등의 여러 일상생활 안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메타인지는 배움 또는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한 전략들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냐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메타인지는 메타 기억과 이해(Meta-memory and Meta-comprehension), 문제해결(Problem solving), 비판적 사고(critical thiking)의 3가지 영역으로 설명된다[14]. 메타기억과 인지는 아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 문제해결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할 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비판적 사고는 생각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며 이러한 평가가 메타인지적 속성이다. 이러한 메타인지는 자기주도학습, 셀프리더십, 학습몰입, 자기효능감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15-17]. 또 Narayanam [18]는 메타인지가 리질리언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개인이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성장하기 위해서는 리질리언스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리질리언스와 연관된 변수로는 공유리더십과 메타인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리질리언스와 메타인지, 공유리더십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많은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고 또 향후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리질리언스, 메타인지, 공유리더십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간호대학생들이 학업의 적응력을 높이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공유리더십과 리질리언스의 관계에서 메타인지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 공유리더십, 메타인지, 리질리언스의 정도를 확인한다.
- 공유리더십, 메타인지, 리질리언스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공유리더십과 리질리언스의 관계에서 메타인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공유리더십과 리질리언스의 관계에서 메타인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한민국 S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공유리더십의 측정을 위해 2019년 1학기 팀기반학습(Team Based Learning)을 적용한 전공기초 교과목 수업에 참여한 1학년 학생 145명으로 하였다. 팀기반학습은 2019년 4월 28일부터 6월 7일 까지 총 6주간 진행되었으며, 주당 2시간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총 141부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3부를 제외한 138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는 2019년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수집되었다.

표본수의 산정은 G*Power 3.1.9.2를 활용하였으며, 유의수준 α 는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로 설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으로 산정된 적정 표본수는 107명으로 표본의 크기는 충족되었다.

2.3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 자발적 참여임을 알렸다. 설문응답 시간은 15분 이내였으며, 설문 작성 중에도 언제든지 중단이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또 수집된 정보는 연구 목적 외는 사용되지 않으며, 설문지는 익명 처리됨을 알렸다.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공유리더십

공유리더십은 Avolio와 Bass[19]가 개발한 도구를 Lee [20]의 연구에서 번역하여 사용한 15문항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공유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20]의 연구에서 Cronbach' α = .9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 .94이었다.

2.4.2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Printrich et al.(1991)이 개발한 학습동기회 설문지를 Lee [21]가 수정보완한 31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하위요인으로 연습 4문항, 조직화 4문항, 비판적사고 5문항, 자기규제 12문항, 정교화 6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메타인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2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요인별 Cronbach' α 값이 .64~.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 .86이었다.

2.4.3 리질리언스

리질리언스는 Reivich와 Shateé [22]가 개발하고 Kim [23]이 한국 실정에 맞게 재수정한 도구를 Bae [24]가 수정보완한 27문항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하위요인으로 통제성 9문항, 사회성 9문항, 긍정성 9문항 등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Bae [24]의 연구에서 각 요인별 Cronbach' α 값이 .86~.87의 범위에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 .92 이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공유리더십과 메타인지, 회복탄력성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공유리더십, 메타인지,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실시하였다.
- 공유리더십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메타인지의 매개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Baron과 Kenny [25]의 3단계 절차로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여자가 86.23%로 많았으며, 연령은 30세 미만이 88.41%로 많았다. 출신 고등학교는 이과계 50.0%, 문과계 43.48%로 문과에 비하여 이과계 학생이 다소 많았다. 종교는 종교가 있는 군이 59.42%, 없는 군이 40.58%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3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9 (13.77)
	Female	119 (86.23)
Age(year)	>30	122 (88.41)
	31 ≥	16 (11.59)
	Natural Science	69 (50.00)
High school	Liberal Arts	60 (43.48)
	Other	9 (6.52)
Religion	Yes	82 (59.42)
	None	56 (40.58)

3.2 대상자의 공유리더십, 메타인지, 리질리언스의 정도

대상자의 공유리더십 정도는 3.75±0.66점 이었으며, 메타인지는 3.58±0.38점이었다. 또 리질리언스는 3.63±0.50점이었다(Table 2).

3.3 공유리더십, 메타인지, 리질리언스 간의상관관계

공유리더십은 메타인지($r=.425, p<.001$), 리질리언스

Table 2. Level of Shared-leadership, Metacognition, Resilience (N=138)

Variable	Minimum	Maximum	M±SD
Shared-leadership	1.20	5.00	3.75 ± 0.66
Metacognition	2.68	4.48	3.58 ± 0.38
Resilience	2.04	4.89	3.63 ± 0.50

($r=.457,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메타인지는 리질리언스($r=.456,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of Shared-leadership, Metacognition, Resilience (N=138)

Variable	Shared-leadership	Metacognition	Resilience
	r(p)	r(p)	r(p)
Shared-leadership	1		
Metacognition	.425*	1	
Resilience	.457*	.456*	1

* $p<.001$

3.4 공유리더십과 리질리언스의 관계에서 메타인지의 매개효과

대상자의 공유리더십과 리질리언스의 관계에서 메타인지의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 [25]의 3단계 절차에 의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이 매개변수인 메타인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설명력은 17.5%임을 확인하였다($\beta=.425,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이 종속변수인 리질리언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설명력은 20.3% 이었다($\beta=.457, p<.001$). 3단계에서 공유리더십과 메타인지를 독립변수로 리질리언스를 종속변수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공유리더십($\beta=.321, p<.001$)과 메타인지($\beta=.319, p<.001$) 모두 리

Table 4. Mediating effect of Metacogn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ed-leadership and Resilience (N=138)

Step	Variable	β	t	p	Adjusted R ²	F	p	VIF
1	Shared-leadership → Metacognition	.425*	5.485	< .001	.175	30.048	< .001	1.000
2	Shared-leadership → Resilience	.457*	5.995	< .001	.203	35.946	< .001	1.000
	Shared-leadership, Metacognition → Resilience				.282	27.908	< .001	
3	Shared-leadership → Resilience	.321*	4.018	< .001				1.221
	Metacognition → Resilience	.319*	3.991	< .001				1.221
Sobel test : Z=3.222, p<.001								

* $p<.001$

질리언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과 종속변수 리질리언스 간의 β 값이 2단계 .457에서 3단계 .321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메타인지는 공유리더십과 리질리언스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obel test 결과 Z값은 3.222로 1.96보다 크게 나타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데이터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urbin-Watson을 실시한 결과 통계값은 1.773로 잔차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분산팽창계수(VIF)는 10미만, 공차한계(Tolerance)는 .819로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유리더십과 리질리언스의 관계에서 메타인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연구결과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공유리더십은 3.75점으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ang과 Shim [26]의 연구에서 5.07점(5점 환산 시 3.62점)보다 높았으며, 군조직을 대상으로 한 Lee와 Woo [27]의 연구에서 4.32점 보다는 낮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대부분이 졸업 후 병원간호사로 취업하는 등 타학과에 비하여 진로 목표 설정이 뚜렷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28], 공유된 목적이 높은 내부 환경일수록 공유리더십의 수준이 높다는 Carson et al.[29]의 연구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 Carson et al.[29]은 발언권이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공유리더십이 높다고 하였으므로, 공유리더십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의 교수들은 수업 시 학습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학생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활발한 소통으로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는 3.58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eo 등 [30]의 연구에서 3.54점, Wang 등 [31]의 연구에서 3.54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는 3.5점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Song과 Park [32]은 메타인지가 교수학습방법에 의하여 강화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수업에서 메타인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메타인지의 강화를 위해서는 메타인지를 활용할 수 있는 교수의 지도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멘토-멘티 제도

나 학생포트폴리오 작성 등도 메타인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30].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교과과정은 물론 비교과과정에서 학생들의 메타인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리질리언스 정도는 3.63점으로 Nam과 Kim [33]의 연구에서 3.28점, Shin과 Chun [34]의 연구에서 3.58점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측정 도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일한 도구를 활용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비교한 결과에도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그 차이의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33]에서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다고 한 바 있으므로 학년에 따른 리질리언스의 정도를 재확인할 필요도 있다.

공유리더십은 리질리언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교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Jeong과 Hong [12]의 연구 및 기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Park과 Cha [35]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공유리더십은 리질리언스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복잡한 과제의 수행 시 팀 활동을 통해 정보공유를 하고 개개인이 구성원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학생들의 리질리언스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때 구성원들 간 책임과 역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까이 리더십을 나누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함을 물론, 과업의 명확한 분배와 더불어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할 때 공유리더십은 극대화할 수 있다[36].

임상 현장의 간호사는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환자를 중심으로 다수의 의료인파 중의료인, 비의료인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업이다. 따라서 대학생 시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개개인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것은 향후 다양한 상황에서 맞게 되는 시련과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전문직 역량을 습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유리더십이 리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메타인지가 부분 매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리질리언스는 공유리더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메타인지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메타인지는 자기 자신의 인지적 과정을 이해하며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며, 자신의 생각에 대해 사고하면서 방법들을 변화시키도록 한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과가 어떠한지, 그러한 결과들은 나의 사고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 평가하는 자가평가 과정이다[37]. 즉 학생들이 상호간의 신뢰와 지원을 기반으로 개개인이 집합적이며 비공식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스스로를 인지하고 평가하고 조절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대학생활은 물론 더 나아가 임상에 나아가서 까지 스트레스 상황을 잘 극복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성공적인 발돋움을 할 것임을 말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공유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팀활동 등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함을 물론 구성원 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에서 학생들의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접목시켜 학생들의 리질리언스가 향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리질리언스는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특성이나 능력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경을 극복하는 평범한 적응방법이다[38].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의 임상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리질리언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은 개발하고 적용할 때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 연구결과를 적용함에 있어 몇 개의 교과목에서의 실험적용이 아닌 학년별 체계적인 교과과정 내에서 적용될 때 보다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 본 연구는 1개 대학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간호학을 포함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유리더십, 메타인지, 리질리언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공유리더십과 리질리언스의 관계에서 메타인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공유리더십, 메타인지, 리질리언스의 정도는 중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공유리더십이 리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메타인지는 이를 부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의 공유리더십과 리질리언스 관계에서 메타인지의 매개역할을 확인하여 리질리언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있다. 따라서 팀활동이나 자기주도학습 등 공유리더십과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후 그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연구의 수행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B. M. Bang, S. Y. Lee & J. O. Cheong. (2015). Empirical study on the turn-over intention of university hospital nur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2), 205-213. DOI : 10.14400/JDC.2015.13.2.205
- [2] A. Rudamn & J. P. Gustavsson. (2012). Burnout during nursing education predicts lower occupational preparedness and future clinical performance: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9(8), 998-1001. DOI : 10.1016/j.ijnurstu.2012.03.010
- [3] T. M. Stephens. (2013). Nursing student resilience: a concept clarification. *Nursing Forum*, 48(2), 125-133. DOI : 10.1111/nuf.12015
- [4] S. Howard & B. Johnson. (1999). Tracking resilience. *Children Australia*, 24(3), 14-2. DOI : 10.1017/S1035077200009214
- [5] H. S. Kim & J. S. Lee. (2017). Influences of emotional factors on ego-resilience in undergraduate students. *J Korean Assoc Soc Psychiatry*, 22(1), 18-25.
- [6] Y. J. Jee & K. N. Kim. (2016). Factors influencing resilience of a nursing college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12), 19-27. DOI : 10.14257/AJMAHS.2016.12.09
- [7] N. J. Hiller, D. V. Day & R. J. Vande. (2006). Collective enactment of leadership roles and team effectiveness: A field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7(4), 387-397. DOI : 10.1016/j.leaqua.2006.04.004
- [8] M. A. Marks, J. E. Mathieu & S. J. Zaccaro. (2001). A temporally based framework and taxonomy of team processes.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6(3), 356-376. DOI : 10.2307/259182
- [9] P. Gronn. (2002). Distributed leadership as a unit of analysis. *The Leadership Quarterly*, 13(4), 423-451. DOI : 10.1016/S1048-9843(02)00120-0
- [10] R. V. Kleij, D. Molenaar & J. M. Schraagen. (2011). Making teams more resilient: Effects of share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aining on resilience. *Proceedings of the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Society Annual Meeting*, 55(1), 2158-2162. DOI : 10.1177/1071181311551450
- [11] J. W. Kim, Y. C. Chang & C. Y. Ahn. (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shared leadership on the employee engagement-resilience as a moderating variable. *Productivity review*, 27(4), 89-121. DOI : 10.15843/kpapr.27.4.201312.89
- [12] Y. J. Jeong & E. A. Hong. (2019). The effects of shared leadership among athletes on innovative behavior in the university soccer teams : the mediating role of resiliency. *Korea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 24(1), 31-45.
DOI : 10.31308/KSSM.24.1.3
- [13] A. L. Brown. (1977). Knowing when, where, and how to remember: a problem of metacognition. *Technical Report*, 47, 1-152.
- [14] M. E. Martinez. (2006). What is metacognition?. *Phi Delta Kappan*, 87(9), 696-699.
DOI :10.1177/003172170608700916
- [15] J. R. Han. (2017). The effects of metacognition on learning flow of team-bas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 mediating effects of shared leadership.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1), 375-383.
DOI : 10.14400/JDC.2017.15.11.375
- [16] J. R. Han & J. M. Kim.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metacognition and learning flow in college students in healthcare field.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6), 273-282.
DOI : 10.14400/JDC.2017.15.6.273
- [17] H. J. Wang, S. A. Jung, H. E. Park, H. S. Yoo, Y. H. Bae & J. Y. Kim. (2016). The metacognition,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9), 619-627. DOI : 10.5762/KAIS.2016.17.9.619
- [18] A. Narayanan. (2009). Resilience, Metacognition and Complexity. *Journal of the Indian Academy of Applied Psychology*, 35(Special Issue), 112-118.
- [19] B. J. Avolio & B. M. Bass. (1995). Individual consideration viewed at multiple levels of analysis: A multi-level framework for examining the diffusion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e Leadership Quarterly*, 6(2), 199-218.
DOI: 10.1016/1048-9843(95)90035-7
- [20] J. Y. Lee. (2011). *The impact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shared leadership on employee creativity: a multi-level perspective*. Master's Thesis, Seoul: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21] W. M. Yi. (2004). *Effect of metacognition and flow level in learning through educational computer game on problem solving ability*. Master's Thesis, Cheongju: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22] K. Reivich & A. Shatté. (2003). *The resilience factor*. New York: BroadwayBooks.
- [23] J. H. Kim. (2011). *Resilience*. Goyang: Wisdomhouse.
- [24] H. R. Bae. (2011). *An Effect of College Students' Resilience on Perceived Career Barriers*, Master's Thesis, Seoul: Kyonggi University.
- [25]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DOI : 10.1037//0022-3514.51.6.1173
- [26] D. M. Yang & D. S. Shims. (2014). The effects of vertical leadership and shared leadership on team commitment and team performance.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11, 163-178.
- [27] S. B. Lee & J. B. Woo. (2014). The influence of shared leadership on team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value congruence, *The Korean Leadership Review*, 5(4), 55-91.
- [28] J. L. Lee. (2019). The influence of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3(3), 61-73.
DOI : 10.34089/jknr.2019.3.3.61
- [29] J. B. Carson, P. E. Tesluk & J. A. Marrone. (2007). Shared leadership in teams: an investigation of antecedent conditions and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0(5), 1217-1234.
DOI : 10.2307/20159921
- [30] I. S. Seo, H. E. Park & J. Y. Kim. (2016). Impact of self-leadership and metacognition on clinic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8(6), 3423-3436.
- [31] H. J. Wang, S. A. Jung, H. E. Park, H. S. Yoo, Y. H. Bae & J. Y. Kim. (2016). The metacognition,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9), 619-627.
DOI : 10.5762/KAIS.2016.17.9.619
- [32] J. Y. Song & J. E. Park. (2017). The effects of strategy of enhanced metacognition on the improvement of creative problem solving skill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7), 1-12.
DOI : 10.14400/JDC.2017.15.7.1
- [33] M. H. Nam & H. O. Kim. (2018). Effect of personality and resilience on satisfaction with major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 24(4), 298-306.
DOI : 10.11111/jkana.2018.24.4.298
- [34] M. J. Shin & Y. E. Chun. (2017). Relationships among resilien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self-efficacy of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7), 281-304.
DOI : 10.22251/jlcci.2017.17.7.281
- [35] Y. S. Park & M. S. Cha. (2018). The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shared leadership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mediating effects of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the knowledge sharing. *The Korean Leadership Review*, 9(3), 97-124.
DOI : 10.22243/tklq.2018.9.3.97
- [36] N. Bienefeld & G. Grote. (2014). Shared leadership in multiteam systems: how cockpit and cabin crews lead each other to safety. *Human Factors*, 56(2), 270-286.
DOI : 10.1177/0018720813488137

- [37] A. Brown. (1987). Metacognition, executive control, self-regulation, and other more mysterious mechanisms. In F.Weinert and R. Kluwe, (Eds.) *Metacognition, motivation and understanding*, 65-116. Hillsdale, NJ:Erlbaum.
- [38] A. S. Masten.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DOI : 10.1037/0003-066X.56.3.227

한 주 랑(Ju-Rang Han)

정회원



- 1981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사)
- 1987년 8월 : 연세대학교 교육 대학원(교육학석사)
- 2003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간호학박사)
- 1981년 3월 ~ 2003년 7월 :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수간호사/팀장
- 2003년 8월 ~ 2014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경영지도실 국장
- 2014년 2월 ~ 현재 : 서정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간호교육
- E-Mail : jrhan27@seojeong.ac..kr